

정읍서 'GBCH 챌린지' 이어져

윤 김진엽 기자 | 승인 2025.02.18 23:41

김잔디 정읍아산병원장-이건국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동참



정읍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는 'GBCH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김잔디 정읍아산병원장과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지난 17일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전북 유치를 향한 염원을 보탰다.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나선 김잔디 원장은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열리면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체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읍아산병원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잔디 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나선 이건국 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건국 지사는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김은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를 추천했다. 정읍
=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엽 기자